

金 時 萬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階段의 이미지를 응용한 陶磁 Tableware  
디자인 연구

2006

誠信女子大學校 造形大學院

造形藝術學科 産業陶磁器專攻

朴 性 信

階段의 이미지를 응용한 陶磁 Tableware  
디자인 연구

金 時 萬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造形大學院

造形藝術學科 産業陶磁器專攻

朴 性 信

# 認 准 書

朴性信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2005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造形大學院



## 論 文 概 要

인간은 과거에 연연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도전과 꿈을 가지고 살기를 기원한다.

예로부터 인간은 높이 날거나 높은 곳을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기를 갈망하였다. 이는 인간의 기대심리가 장소나 위치 등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며,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계단은 단순한 이동의 공간을 떠나 조형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 계단이 있어 더 아름다운 건물, 자연을 거슬리지 않고 쌓아 놓은 북한산 자락의 돌계단, 웅장함을 더하는 계단형 무덤 등에 내재된 조형의 언어를 재해석하여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테이블웨어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식탁에서 흔하게 접하는 테이블웨어는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기호를 감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인의 가치변화에 따라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세계를 자극할 수 있도록 계단의 상징적 형상과 시각적 기능을 중점으로 하여 여러 형태의 Food Style 중 Tea Tableware와 Dinner Set를 제작하고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음식문화에 맞는 테이블웨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작방법은 정리된 계단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개선된 음식문화와 조화를 염두하고 제작에 임하였다.

태토는 내구성과 백색도가 양호한 자기질 점토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대량생산과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석고틀에 의한 이장주입성형을 이용하였다.

다양한 색감을 얻고자 투명유, 청자유, 동결정유를 사용하여 밝고 시원한 느낌

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소성은 전기가마를 이용하였으며, 850℃ 정도로 1차 소성한 후 유약에 따라 1250℃ 전후에서 2차 소성하였고 800℃로 3차 소성하였다.

변화된 생활로 하여금 다양한 생활자기의 출현이 예상되고 더불어 많은 연구가 요구될 것이며, 미력한 이 연구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한다.

# 目 次

## 論 文 概 要

I. 序 論 .....	1
1. 研究目的 .....	1
2. 研究內容 및 方法 .....	3
II. 本 論 .....	4
1. 계단의 이론적 배경 .....	4
1) 계단의 일반적 고찰 .....	4
2) 계단의 상징적 의미 .....	5
2. 시작품 제작과정 및 설명 .....	9
1) 시작품 의도 .....	9
2) 제작과정 .....	10
3) 시작품 설명 .....	14
III. 結 論 .....	32

## 參 考 文 獻

## ABSTRACT

## 表 目 次

<表 1> 태토의 조합비 ..... 10

<表 3> 유약 조합비 ..... 12

<表 4> 소성 온도표 ..... 13

## 圖 目 次

[圖 1] 불국사, 백운교·청운교 .....	7
[圖 2] 동해, 계단형의 파도 .....	7
[圖 3] 지리산, 눈덮힌 계단 .....	7
[圖 4] 미국 마이애미, 비즈카야 박물관 계단 .....	7
[圖 5] 콜롯세움, 로마 원형경기장 .....	7
[圖 6] 장충동, 경동교회 계단 .....	7
[圖 7] 김소라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1996 .....	8
[圖 8] 김성일作, 인체, 2000 .....	8
[圖 9] 이현숙作, 자연으로부터의 빛, 2004 .....	8
[圖 10] 김문선作, 인연, 1995 .....	8
[圖 11] 정구임作, 주전자, 2004 .....	8
[圖 12] 정진영作, Face, 1997 .....	8
[圖 13] 시작품(7,9) 석고사용형 .....	11
[圖 14] 시작품(6) 석고사용형 .....	11

## 試作品 目次

【試製品 1 圖面】 .....	14
【試製品 1】 Tea Tableware I .....	15
【試製品 2 圖面】 .....	16
【試製品 2】 Tea Tableware II .....	17
【試製品 3 圖面】 .....	18
【試製品 3】 화채용 Bowl .....	19
【試製品 4 圖面】 .....	20
【試製品 4】 아이스크림 Bowl I .....	21
【試製品 5 圖面】 .....	22
【試製品 5】 아이스크림 Bowl II .....	23
【試製品 6 圖面】 .....	24
【試製品 6】 유아용 스파게티 접시 I .....	25
【試製品 7 圖面】 .....	26
【試製品 7】 유아용 스파게티 접시 II .....	27
【試製品 8 圖面】 .....	28
【試製品 8】 다과용 Dinner Set I .....	29
【試製品 9 圖面】 .....	30
【試製品 9】 다과용 Dinner Set II .....	31

# I. 序 論

## 1. 研究目的

인간 삶의 행위와 생각은 미래를 향한 기대와 목표를 위한 것이기도 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현실에서는 절망과 고통,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현대인의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힘을 주는 원천이 희망과 기대라고 생각하며 이런 조형적 특징으로 계단을 상승이란 이미지로 형성하게 되었고 계단을 통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기업 간의 격차가 희박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상품선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디자인에 집중되고 있고,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는 양적 충족에서 질적 추구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활공간, 음식문화 등과 관련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하며, 생활용기 역시 창의적인 제품을 통해 개성적인 테이블웨어를 연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계단의 이미지를 주관적 심상으로 형상화하고 현대인들의 음식문화에 적합하도록 Tea Tableware와 Dinner Set로 기획 제작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테이블웨어를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대의 소비 패턴은 감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감성은 디자인의 기본적인 기획력이 충족된 이후에야 부가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의 쾌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인간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기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감성은 인간공학적

연구가 선결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의 가치변화에 따라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세계를 자극할 수 있는 테이블웨어를 제작하게 되었다.

## 2. 研究內容 및 方法

옛날부터 계단은 천신을 숭배하는 신앙이나 종교적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늘이나 높은 곳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자연물이나 인공물에서도 동질의 의미를 지향하면서 염원이나 이상을 구현하는 대상으로 삼고는 하였다.

경제적 윤택함은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고조시켰으며 이는 새로운 소비성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생활의 윤택해짐에 따라 문화 전반에 걸쳐 각 장르간의 혼성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퓨전’ 현상은 문화의 새로운 코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술, 패션, 건축, 디자인 등의 분야는 물론 음식이나 기업의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 우리 디자인계에서도 퓨전스타일의 디자인이 커다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sup>1)</sup>

이러한 소비자의 감성을 고려하여 계단이라는 이동간의 소통구역을 나름대로의 조형의지로 재해석하고, 음식을 담는 단순한 순기능과 미적구성으로 인한 심인적 즐거움이 증대되는 생활용기를 제작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Tea Tableware와 Dinner Set를 제작하였으며 화채용 Bowl은 이중기벽으로 제작하여 용기의 실용성을 중시하였고, 계단의 형을 조각하여 연속각면과 굴곡면을 표현하고 계단의 이미지가 담긴 상회용 전사지를 이용하여 장식하였다.

제작방법은 석고성형이 가진 단조로운 성형에서 탈피하여 간틀을 자유롭게 이동시켜 다양한 형태를 얻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하였고 이 방법으로 석고틀 하나에서 여러 형태를 조망할 수 있었다.

---

註1) 월간디자인 「신 문화코드 퓨전」, 2000. 2

## II. 本 論

### 1. 계단의 이론적 배경

#### 1) 계단의 일반적 고찰

인간이 적극적으로 자연에 자신들을 위한 질서를 구축해 나가면서 발생한 계단은 상하공간을 연결하는 수직보행의 통로인 동시에 공간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질공간의 매체이다. 또한 동적이며 변화감 있는 방향성으로, 단조로운 유동감이 있으므로 계단의 형태는 자유롭고 감각적인 행동표현의 요소가 된다.

계단은 권력, 권위, 명예, 신분을 표시하며 인간정신의 동경이나 우주형상을 표현하고 미학적, 조형적인 공간미의 표현으로 공간의 분리를 강조한다. 그래서 계단은 건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2)</sup>

건축에서의 계단은 공간과 공간의 흐름과 형태상의 역할 등으로 구성적이고 기하학적인 상하관계를 갖고 있다.

현대건축에서는 계단의 기능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단위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공간들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공간구성의 방법이다. 점차로 복잡해져가는 기능과 내부적 수용의 문제에 대하여 계단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입체적인 이동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공간들의 관계를 형성하여 공간구성의 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

註2) 이승연, "계단의 형태를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P.1~3

## 2) 계단의 상징적 의미

계단은 인간이동의 순환경로, 통행경로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sup>3)</sup> 고저의 차이로 인해 분절된 두 공간을 연결시키는 도구이므로 단순한 통행경로만이 아닌 인간사의 고리이기도 하다.

상승, 하향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계단은 계층, 권력, 사회적 욕구로 나타내고 있다.<sup>4)</sup>

계단 혹은 사다리는 범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종교적 상징으로서 서로 다른 종적 수준 사이의 교통, 단계지움과 상승의 관념을 지니고 있다.<sup>5)</sup> 상승과 하강은 인생의 주기에 비유되기도 하고 상승은 행운, 하강은 불행이라는 속신, 혹은 사다리 아래로는 다니지 않는 풍습이 동남아 민족에게 퍼져 있었다.<sup>6)</sup>

그리스 고전시대 이후의 종합주의에서의 성인의식은 연금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상승의 문제를 꾸준히 생각해왔다고 한다. 상승은 사다리로 묘사되어 이집트에서는 작은 사다리를 죽은 사람의 부장품에 포함시켰다.<sup>7)</sup>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계단은 속계에서 성역으로 향하는 단계로 표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국사의 돌계단이 있는데 위와 아래의 세계를 이어주는 청운교(靑雲橋)와 백운교(白雲橋)의 총33계단이다.<sup>8)</sup> 【도1】 참고

불교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계율을 수여하는 식장, 계율을 수여할 때는 깨끗한 장소를 골라 결계를 정하고 행하는데, 흙·돌·자갈을 써서 3겹의 단을 쌓아 식장으로 하였다.<sup>9)</sup>

註3) 이승연, 같은 책, P.1

註4)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2002, P.176~177

註5) J.E Cirlot, A Dictionary 08 Sybls, London : Routledge kegan Paul, 1983, P.312, 313.

註6) H. Bächtold Staubli, Handwörterbuch des deutschen Aberglaubens, Bd. VIII, Berlin : Walter de Gruyter & Co. , 1936/37, pp. 578~591.

註7) C.G. Jung(ed.), Man and His Symbols, London : Aldus Books, 1964, p. 74.

註8) 한국불교연구원, <한국의 사찰> ①, 『불국사』, 1974, 34~36쪽

註9) <http://kr.dic.yahoo.com>

그러므로 계단은 수평의 단조로움을 깨트리는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움직임을 수용하는 공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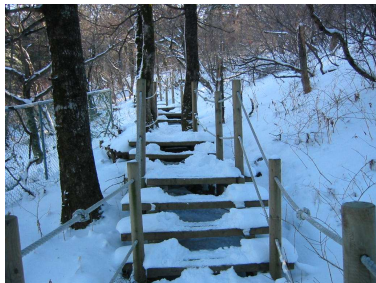
## 참 고 도 판



【圖 1】 불국사, 백운교·청운교



【圖 2】 동해, 계단형의 파도



【圖 3】 지리산, 눈덮힌 계단



【圖 4】 미국 마이애미,  
비즈카야 박물관 계단



【圖5】 로마 원형경기장,  
콜릿세움



【圖 6】 장충동,  
경동교회 계단



【圖 7】 김소라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1996



【圖 8】 김성일作,  
인체, 2004,



【圖 9】 이현숙作,  
자연으로부터의 빛, 2004



【圖 10】 김문선作, 인연, 1995



【圖 11】 정구임作,  
주전자, 2004



【圖 12】 정진영作,  
Face, 1997

### 3. 試作品 製作 및 說明

#### 1) 製作意圖

과거에는 한 집안의 그릇의 품위는 그 집안의 이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중시될 만한 가치를 가졌었다. 일상생활에 우리들 삶 속의 음식문화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식사하는 시간의 소통의 역할이란 중요한 부분이다.

현대에는 음식문화의 변화로 많은 그릇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음식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는 형태들의 변화는 우리들의 음식문화의 변화에 비하면 단조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소의 불편함을 배제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의 조형미를 통한 유희성을 기대하는 심리가 늘고 있다.

인간의 사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계단의 상징적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이를 인간의 상승욕구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기획하고 동시에 생활 속에서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테이블 웨어로 제작하였다.

기존의 식기와 차별화된 형태와 색상, 다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여러 방법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함을 갖도록 하였다. 이는 작업에 있어서 유니트의 연결, 접합과 배치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반복 작업의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자의 유희적 발상에 따라 재구성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여 제작하고 석고의 힘든 제형방법을 보다 흥미있게 전개하고자 하였다.

계단의 조형적 형태를 모티브로 보편적 조형요소인 직선과 곡선, 원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응용하여 상승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계단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 2) 製作 過程

### (1) 태토

시제품에 사용된 점토는 작업의 특성상 계단의 연속 각면과 굴곡의 형태를 유지하기에 용이하며, 백색도가 뛰어나 용기에 적합하고 이장주입 성형이 가능한 자기질 점토를 사용하였다.

<표 1> 태토의 조성비

(단위 : %)

성분	SiO <sub>2</sub>	Al <sub>2</sub> O <sub>3</sub>	Fe <sub>2</sub> O <sub>3</sub>	CaO	MgO	Na <sub>2</sub> O	K <sub>2</sub> O	TiO <sub>2</sub>	Ig, Loss
비율	72.69	18.71	0.18	0.09	0.05	0.69	2.00	0.05	5.53

(자료 : 고려도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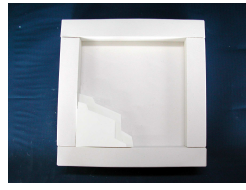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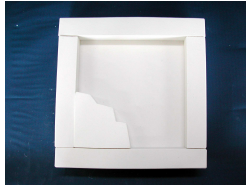
### (2) 제형

원형 제작시 태토의 건조수축률과 소성수축률을 감안하여 시작품을 20% 확대한 크기의 틀을 제작하였다.

제형방법을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하여 원형에서 바닥틀까지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시작품 1,2,8]은 기본원형을 제형물레에서 제작한 후 계단의 조형적 표현을 위하여 연속각면과 굴곡의 형태를 만들어 제작하였다.

[시작품 7,9]은 우드락을 이용하여 작업하므로 단시간에 빠르고 손쉽게 틀을 제작할 수 있었고, 단조로운 반복적 형태가 아닌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게 작업하였다. 조각사용형은 요철이 없어 사용형안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유출이 가능하여 하나

의 사용형에서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모양이 다른 시제품을 얻어 낼 수 있다.



【도13】 시작품(7,9) 석고사용형



【도14】 시작품(6) 석고사용형

### (3) 성형

시작품은 이장주입기법으로 성형하였고 시작품(1,2,3,4,5,6)은 석고틀 내부에 3.5~4mm, 시작품(7,8,9)은 기물의 크기에 따라 4~5mm 두께가 형성되면 남은 이장을 배출하였으며 시작품(7,8,9)은 건조 시 사각접시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형할 때 판을 이용하였고 최대한으로 손작업은 피하도록 하였다.

틀에 요철이 없으므로 같은 크기의 유니트를 제작하기 위해 틀 고정 시 내부에서 일정한 사이즈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요철이 없는 틀을 이용하여 작업하므로 일반 석고작업이 제작 도입시 의도한 사이즈에 의해 규격화되어지는 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이즈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외형 틀을 반복 사용할 수 있어 틀 제작에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형태를 찾을 수 있었다.

시작품(5,6,7,9)은 다양한 색감을 얻기 위하여 국산 고온소성용 안료인 Green(H-606) 0.2%, Green(M-151) 0.2%, Turquoise Blue(M-1350) 0.2%와 Mn-Pink(H-390) 0.3%를 첨가한 색이장으로 제작하였다.

#### (4) 유약 및 시유

유약은 밝고 산뜻한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투명유, 청자유, 동결정유를 사용하였으며 시작품(4)은 동결정유의 낮은 용점을 고려하여 이중기의 안쪽 면에 시유하였다. 이중기의 안쪽 기벽과 바깥쪽 기벽의 유약을 다르게 하여 다양한 색감을 얻어 낼 수 있었다.

<표 2> 유약 조합비

(단위 : %)

원 료	유 약	투명유	청자유	동결정유
부여장석	$\text{Na}_2\text{O} \cdot \text{Al}_2\text{O}_3 \cdot 6\text{SiO}_2$	49.4	40.0	25.3
부여규석	$\text{SiO}_2$	9.4	15.0	21.2
금산석회석	$\text{CaCO}_3$	20.0	15.0	17.0
인도네시아카오린	$\text{Al}_2\text{O}_3 \cdot 2\text{SiO}_2 \cdot 2\text{H}_2\text{O}$	8.5	15.0	
탄산바륨	$\text{BaCO}_3$	8.7	10.5	17.0
아연화	$\text{ZnO}$	4.0		
결성활석	$3\text{MgO} \cdot 4\text{SiO}_2$			8.5
산화티탄	$\text{TiO}_2$			6.8
산화제2철	$\text{Fe}_2\text{O}_3$		4.0	
산화크롬	$\text{Cr}_2\text{O}_3$		0.5	
산화동	$\text{CuO}$			4.2
계		100.0	100.0	100.0

#### (5) 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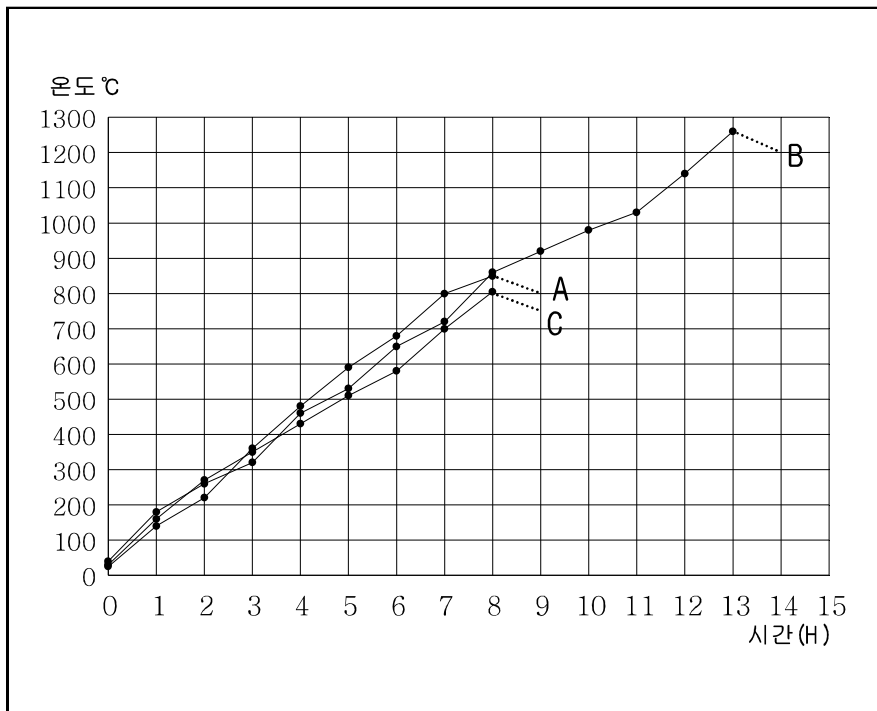
1차 소성은 기물의 강도를 높이고 유약의 흡수성을 고려하여 850℃ 정도로 소

성하였다. 2차 소성은 투명유를 시유한 것은 전기가마로 1260℃에서 산화소성하였으며 청자유, 동결정유로 시유한 것은 13시간정도로 1250℃에서 산화소성하였다. 3차 소성은 상회용전사, 수금으로 장식하여 800℃로 소성하였다.

시작품(8,9)은 소성 후 접시의 형태변형으로 1차 소성된 도판을 기물 밑에 깔고 2차 소성하여 형태의 변형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냉각시 기물의 냉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시간 이상 서서히 냉각시켜 기물을 요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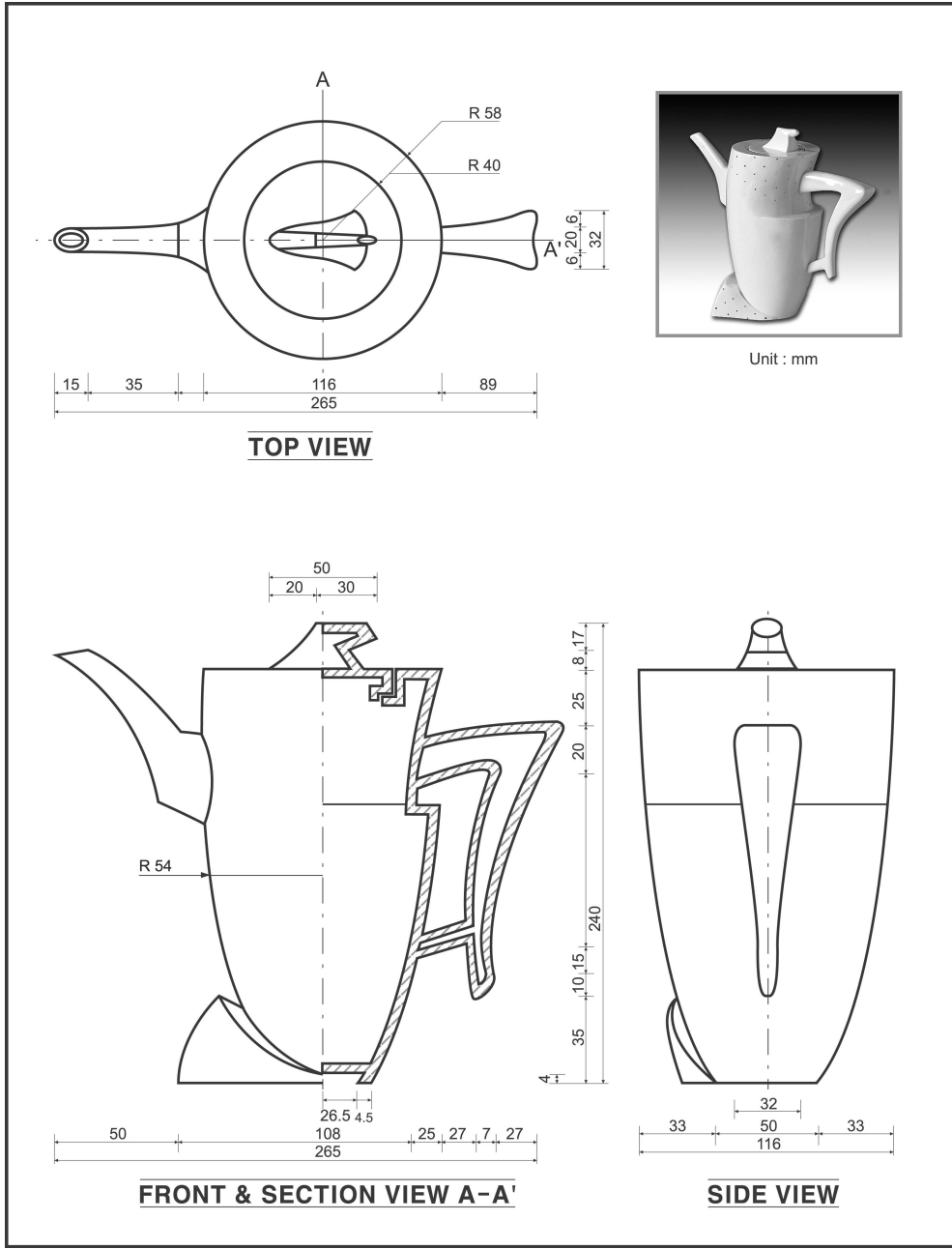
<표 3> 소성 온도표



A: 1차소성    B: 2차소성(산화)    C: 3차소성

3) 試作品 説明

【試製品 1 圖面】



【試製品 1】 Tea Tablewar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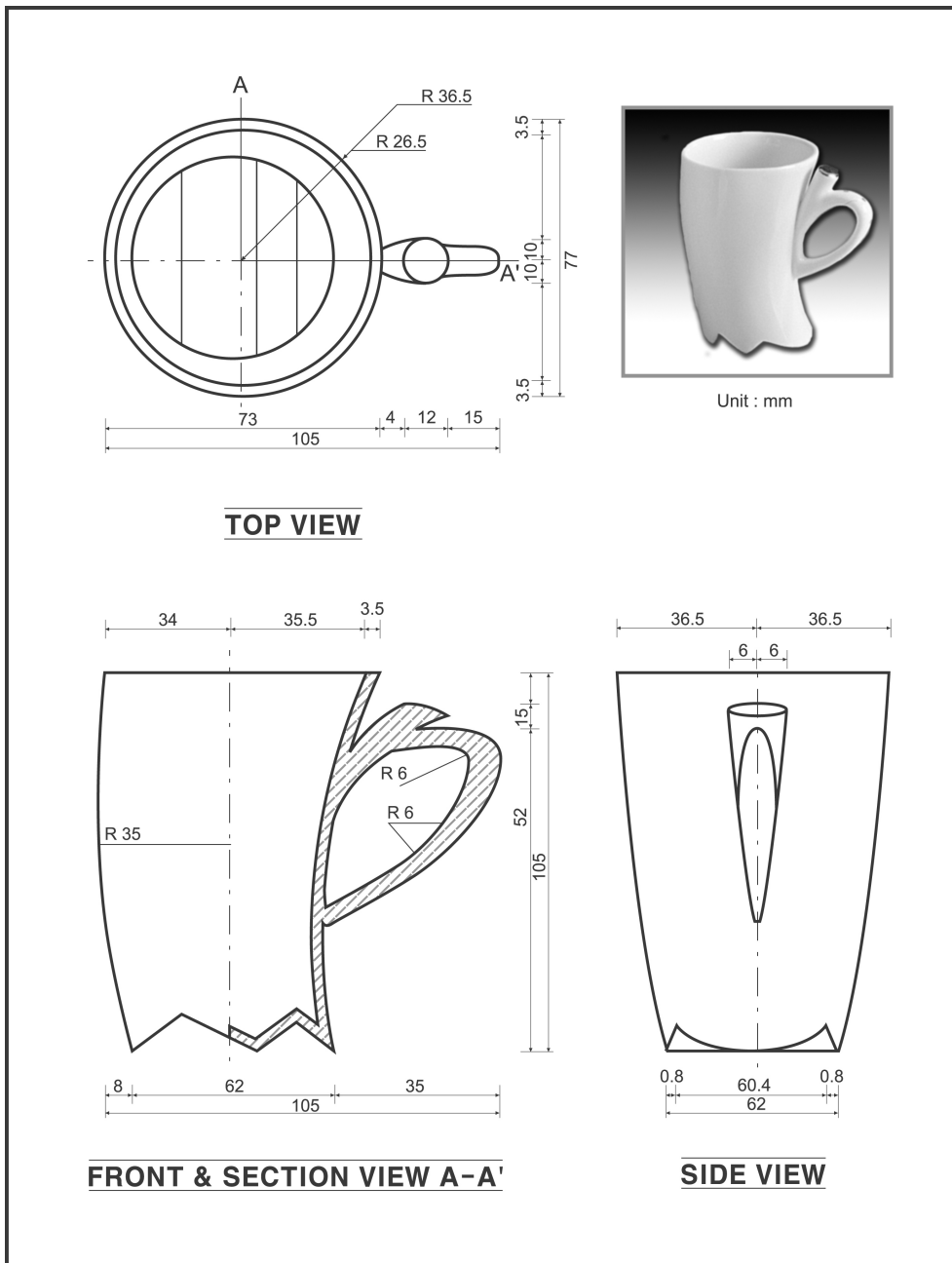


투명유, 1260℃, 산화소성, 265×130×H240(mm)

공간에 생명을 주기위한 도구로서의 계단에서 외부세계와 내부세계가 끊임없이 회전하며 반복되는 현상을 표현하고자 나선형의 구조로 디자인하였다.

시작품의 전체외형은 이상을 향하고자하는 내적표현을 나타낸 것으로 인체의 형상에서 찾아보았다.

【試製品 2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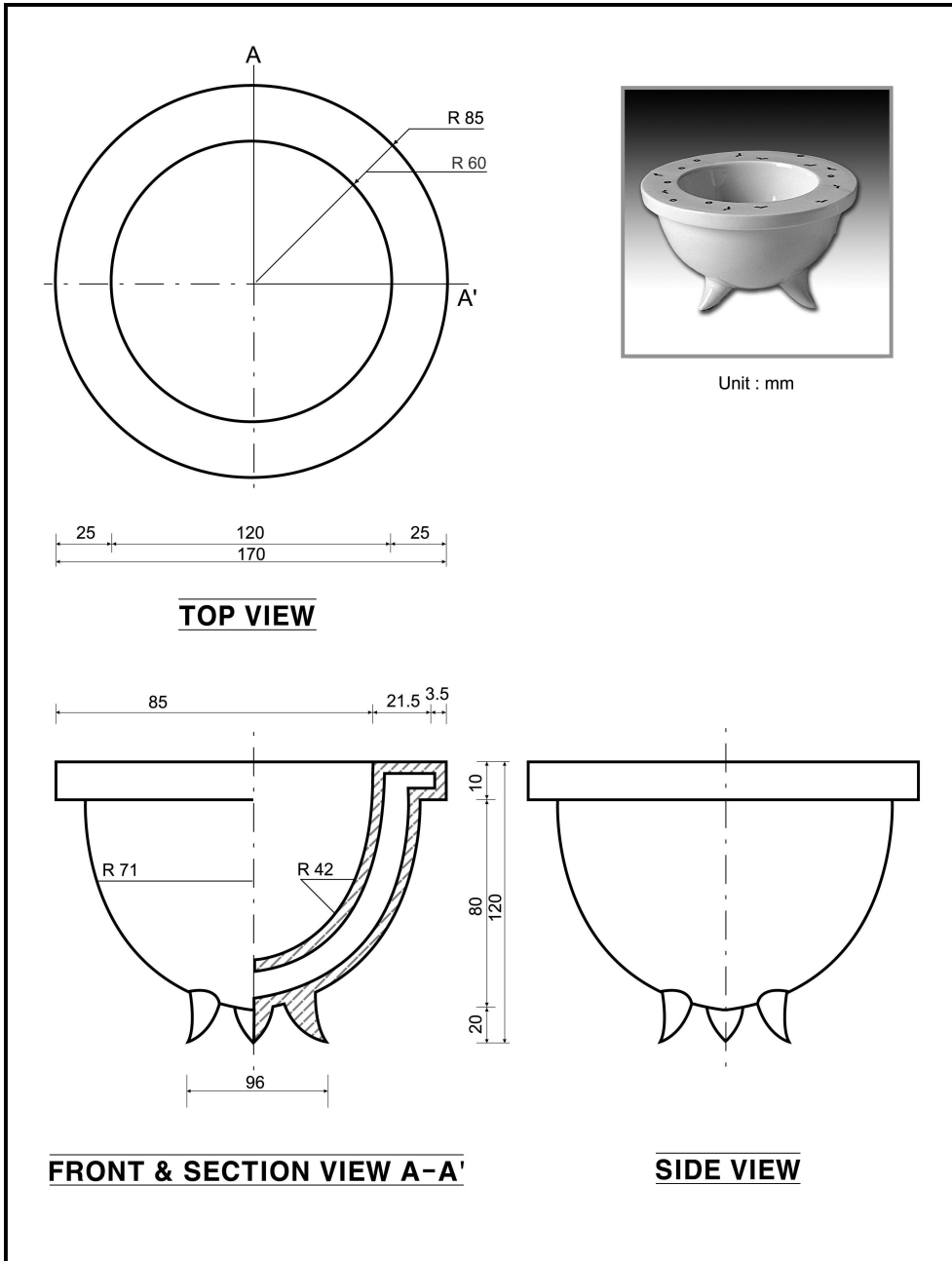
【試製品 2】 Tea Tableware II



투명유, 1260℃, 산화소성, 170×170×H135(mm)

나선형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본 모습을 조형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제형물레로 컵 원형을 제작하고 받침은 우드락으로 제작하여 요철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투명유를 사용하고 계단이미지의 전사지로 장식한 후 3차 소성하였다.

【試製品 3 圖面】



【試製品 3】 화채용 Bow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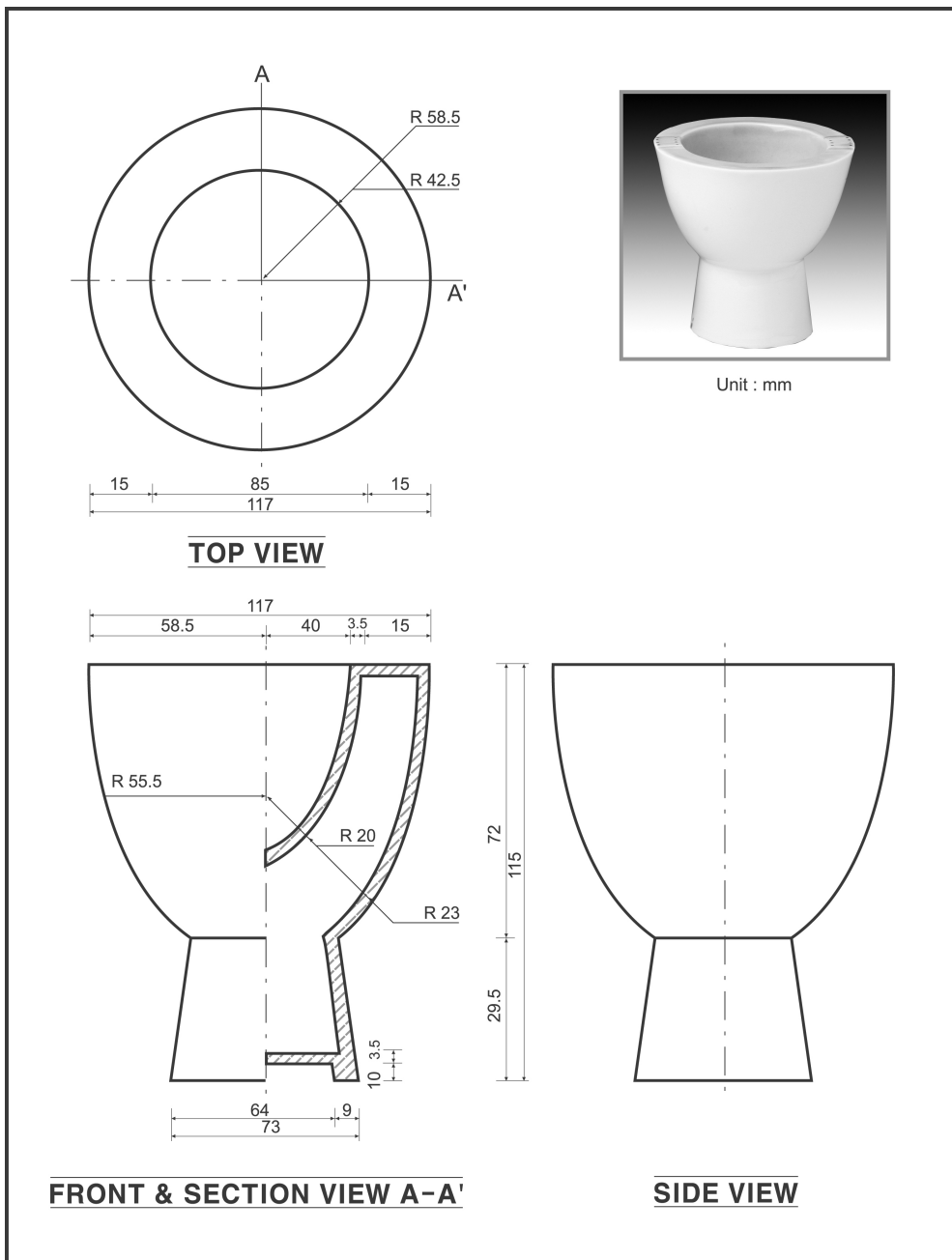


투명유, 1260℃, 산화소성, 680×510×H85(mm)

전 부분을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기로 제작하였으며 볼의 전부분과 안쪽 기벽에 계단이미지를 전사지로 장식하여 표현하였다.

다양한 색감을 얻기 위하여 Turquoise Blue(M-1350) 색이장으로 성형하고 투명유로 시유하였다.

【試製品 4 圖面】



【試製品 4】 아이스크림 Bowl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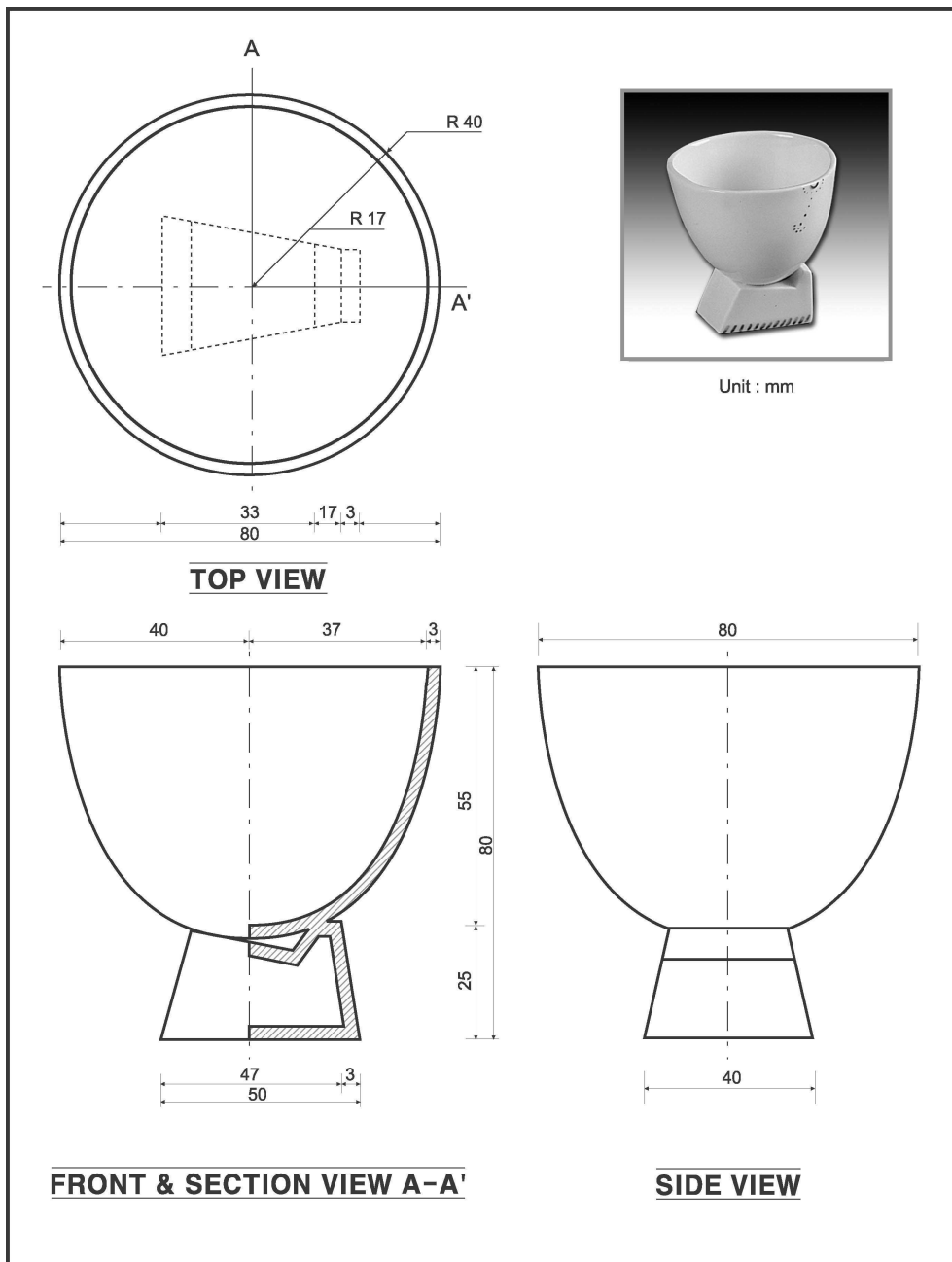


투명유, 청자유, 동결정유, 1250℃, 산화소성, 117×117×H115(mm)

음식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기벽으로 제작하였으며 여름이란 계절의 특성상 산뜻한 분위기 연출을 하기 위하여 푸른색 계열의 유약으로 시유하였고 받침 부분은 계단이미지를 조각하여 표현하였다.

이중기의 제작은 시작품3)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였으며 고급스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동결정유를 안쪽 기벽에 시유하였다.

【試製品 5 圖面】



【試製品 5】 아이스크림 Bowl II



투명유, 1260℃, 산화소성, 80×80×H80(mm)

놀이는 어린이들에게 있어 자유롭고 재미있으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행위이다.  
현대의 변화된 음식문화와 함께 그에 따라 어린아이들의 기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작품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식사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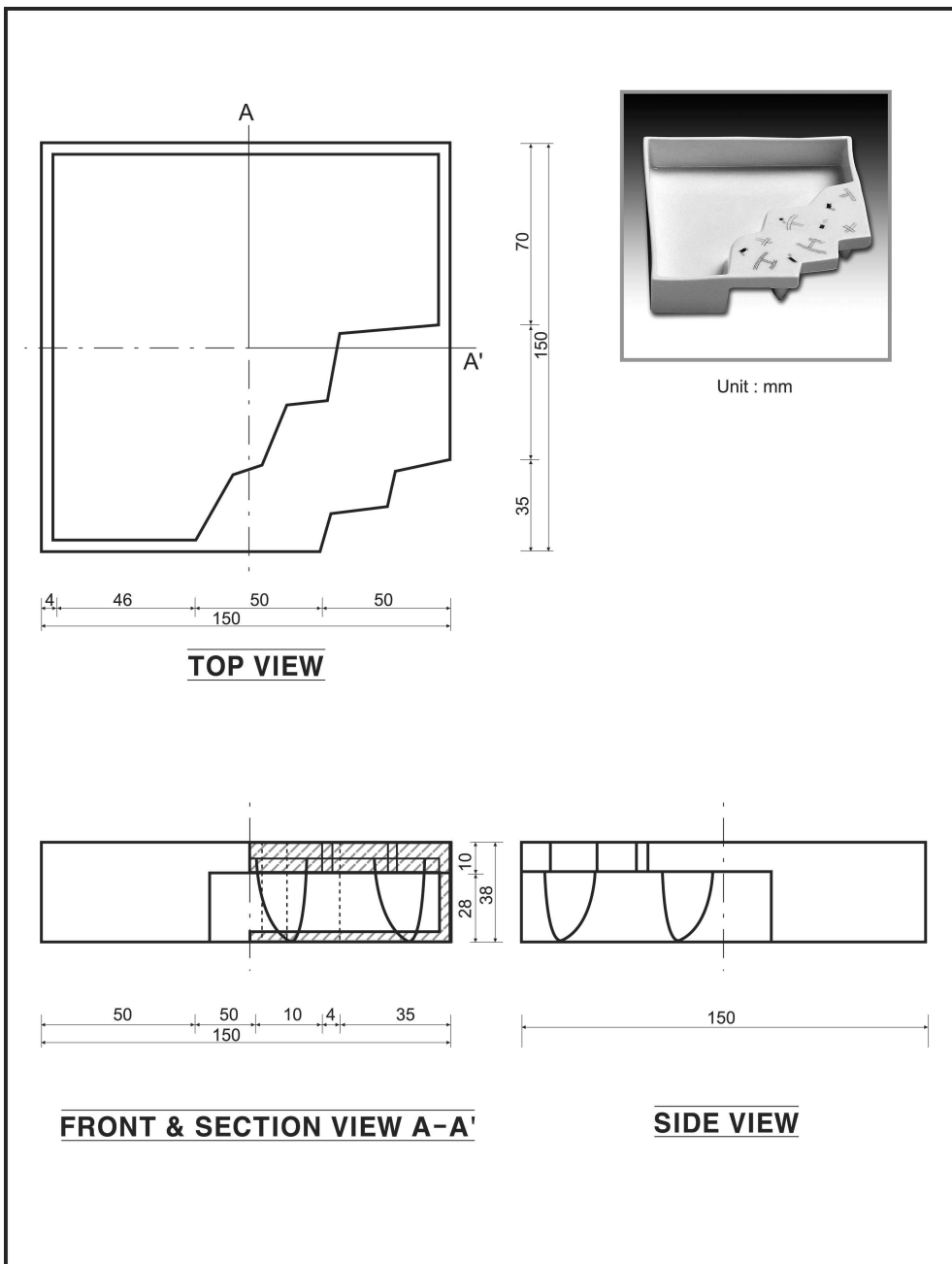
【試製品 6】 유아용 스파게티접시 I



투명유, 1260℃, 산화소성, 150×150×H60(mm)

현대에 새롭게 나타난 퓨전스타일로 인하여 종전과 다르게 간단한 식차림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음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식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시작품6)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아들의 재밌고 즐거운 식사시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試製品 7 圖面】



【試製品 7】 유아용 스파게티접시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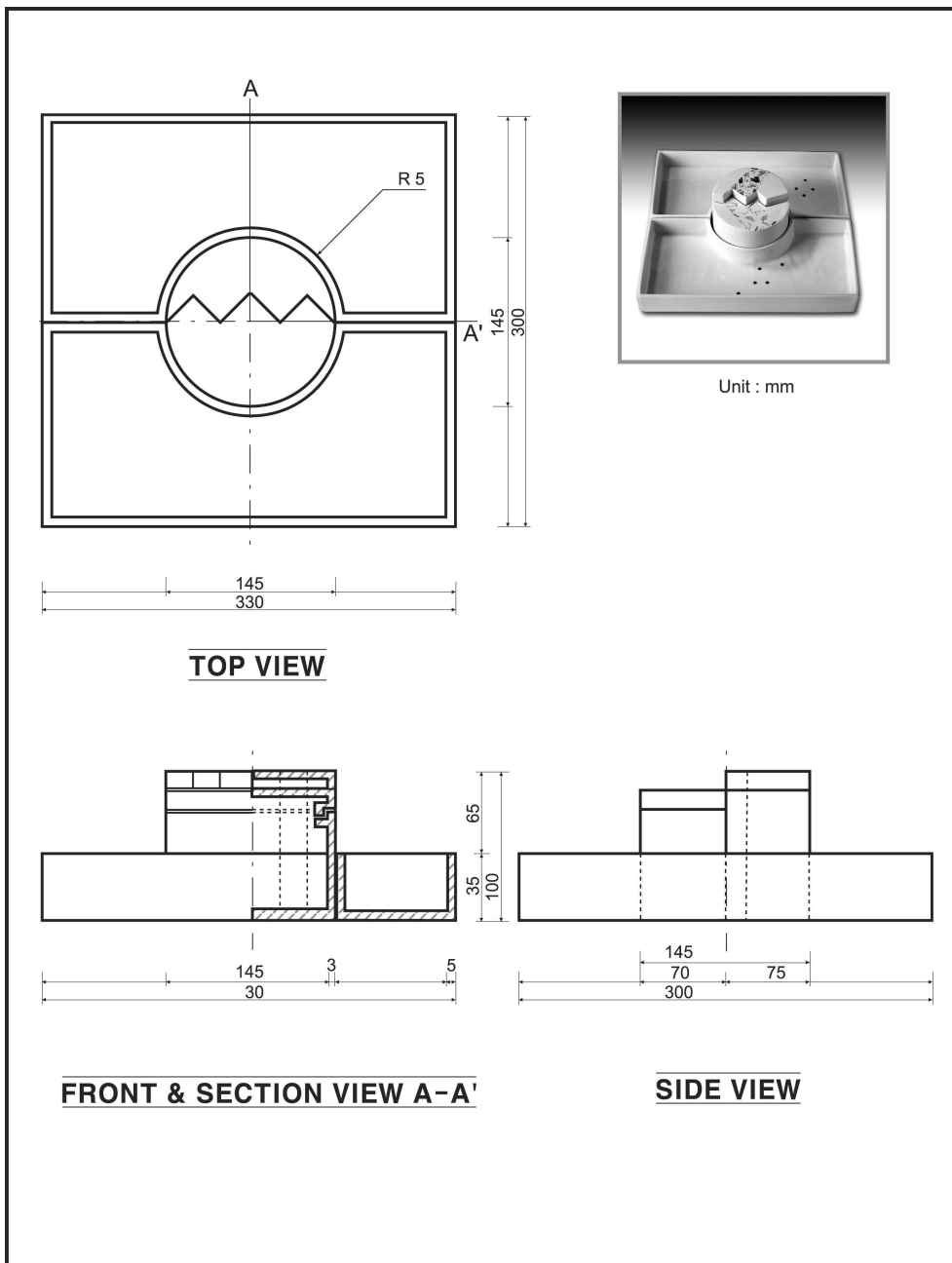


투명유, 1260℃, 산화소성, 150×150×H35(mm)

스파게티나 볶음밥과 같은 간편한 Food style에 맞게 제작하였으며, 요철이 없는 틀에 크기가 다른 계단형의 유니트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계단의 일반적 요소인 수직, 연속각면의 이미지를 사각형 접시의 한부분에 표현하였다.

Green(H-606) 색이장으로 성형하고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試製品 8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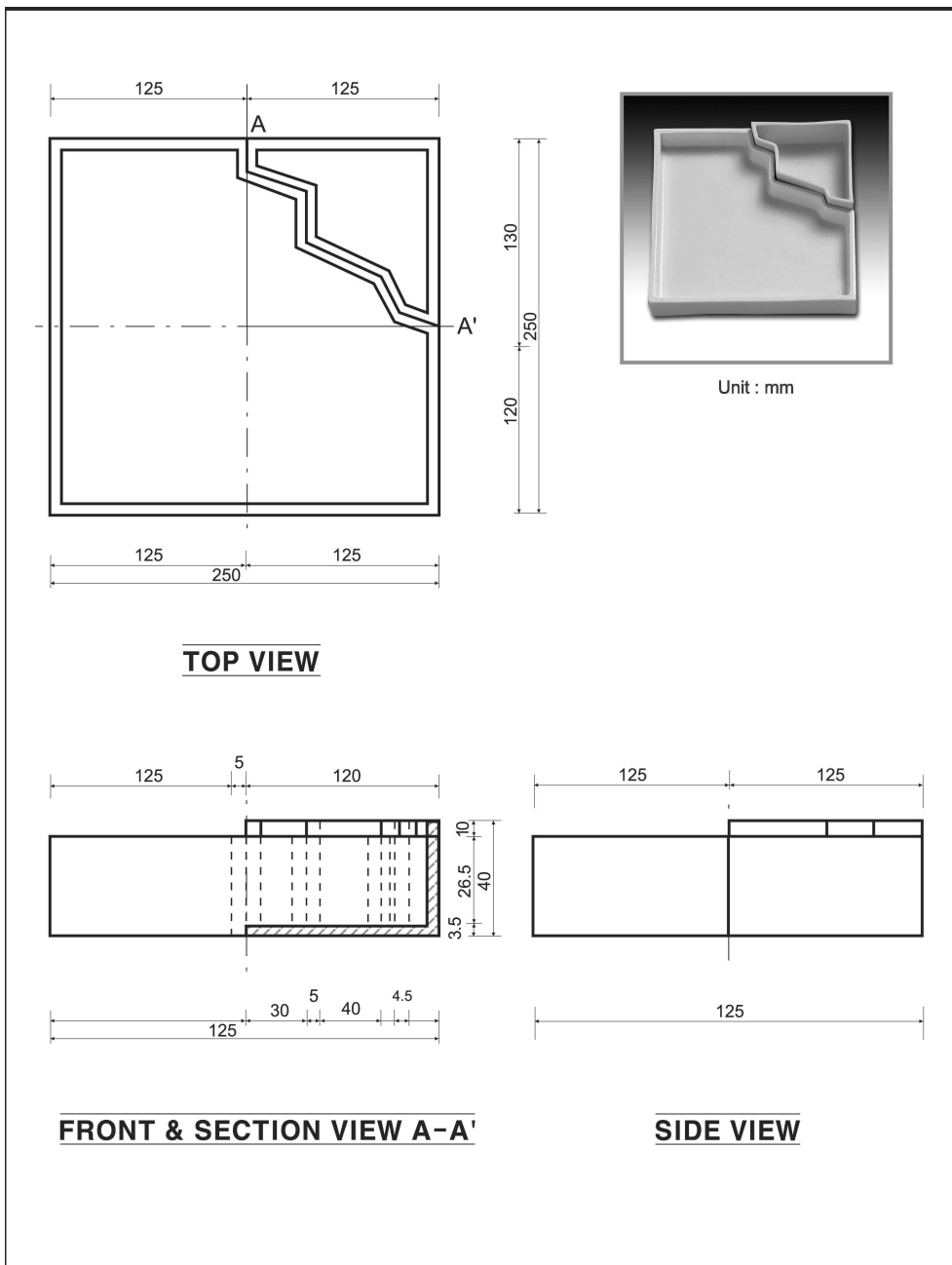
【試製品 8】 다과용 Dinner Set I



투명유, 1260℃, 산화소성, 330×330×H100(mm)

새롭고 특별한 식사시간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의 음식을 한 곳에 담아두어 함께 모여 즐거운 담화를 나누며 파티 중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는 Dinner Set로 제작하였고 한식과 양식, 뷔페 스타일의 파티에도 적합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試製品 9 圖面】



【試製品 9】 다과용 Dinner Set II



투명유, 1260℃, 산화소성, 250×250×H30(mm)

꿈과 이상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의 일상적 개념을 기본으로 직선과 연속 각면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어린아이들의 재밌는 발상과 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각접시를 제작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기대하여 본다.

조각접시는 Green(H-606) 색이장으로 성형하고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 III. 結 論

공예는 원래 실용성이나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름다움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생활용기를 디자인함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의 이미지를 문양화하고 이미지를 용기에 부분적으로 적용시켜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단이라는 단순한 소통공간을 나름대로의 조형의지로 재해석하여 테이블웨어를 제작하게 되었다.

곡선이나 원형의 용기에 다소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계단의 이미지를 문양으로 조화시켜 표현하였는데 그 결과

첫째, 부드러운 곡선과 강한 직선의 대조적인 감각이 표현되었고

둘째, 그릇의 내면의 양각 표현으로 부조적인 느낌과 새로운 강조적 표현감이 보였으며,

셋째, 보편적인 생활용기의 디자인보다 과감히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본 작업에서는 감성이 사람의 인생관이나 생활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인간공학적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자연이나 인공적인 모티브가 새로운 식문화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테이블웨어에 많이 응용되어 연구될 것으로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 강우방· 신용철, 「탑」, 솔출판사, 2003
- 임연용, 「현대디자인원론」, 학문사, 1996
- 정병관 外, 「현대미술의 동향」, 미진사, 1994
- 전통 마케팅 전략연구소, 「감성소비와 이성소비를 잡아라」, 소담출판사, 1993
- 존&애브릴 블레이크, 「현대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미진사, 1984
-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주)도서출판 한길사, 2002
- 김병익, 「도예장식기법」, 태학원, 1999
- 코바야시 모리타, 「건축미의 과학적 탐구」, 김동영 역, 보문당, 2004
- 임혜승, 「조형예술의 이해」, 조형사, 1996
- 월간디자인, 「신문화코드 퓨전」, 2000, 2월호
- 장지선, “음식문화의 다원화에 따른 테이블웨어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1
- 이승연, “계단의 형태를 응용한 도자 조형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 이은희, “이상(理想)의 상징성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2000

# ABSTRACT

## **Porrert tableware design study based on stair image**

Park, sung sin

Industrial Ceramics Major

Dept. of Plastic Arts

Bulletin of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man being pursues life with the challenge and dream for the future rather than clinging to the past.

Since long ago, human desired to fly high or look down the world from a place up above. This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human expectation being related to a place or a location, which reflects human's psychology of yearning for ideal world.

The stairs that are often seen around us, apart from a mere space of movement, may be interpreted very meaningfully in terms of shape. We plan to produce a table wear that suits the modern sentiment by re-interpreting the language of shape that is embedded in things as a building that is added with more beauty by the stairs, rocky stairs in Bookhan mountain skirt that are piled up without offending the nature,

and stair-like tombs of grandeur.

Although the table wears that we encounter most often on the table today have unique function, it is hardly said that modern taste that pursues individual life is considered in th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nufacture Tea Tableware and Dinner set among the many kinds of the Food style placing emphasis on the symbolic form and the visual function for the stairs, in order to impulse the sensibility by the change of value for the moderns, as a result to propose Tableware suitable to the Food culture for the moderns.

For production method, the image of arranged stairs was reconstructed or attached to the deformity, in consideration of harmony with improved food-culture.

Bone china that provides good durability and whiteness was used as major material for ground soil, and slip casting method by plaster frames was used as it provides massive production and delicate craftsmanship.

Transparent oil, porcelain oil, and freezing refined oil were used in order to acquire various colors and deliver bright and cool impression.

Electric stove was used for plasticity. The 1<sup>st</sup> plasticity was made in 850°C, while 2<sup>nd</sup> oxidized plasticity was made before and after 1250°C by glazing. The 3<sup>rd</sup> plasticity was made in 800°C.

It is expected that various living ceramics will appear as a result of changes in lifestyle and more studies will be required consequently. We hope our small study will make any contribution to these foreseen changes.